여름 지정연기 대본

S#5

여름: (NA) 여기는.. 어디야...

여름 앞에 문이 하나 나타나고, 여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연다. 그리고 안에 있던 K를 발견한 다. K는.. 어딘가 교수님을 닮았다.

K: (뒤를 돌아보며) 오셨네요?

여름: 교수님?

K: (미소를 지으며) 그럴지도 모르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잠깐 앉아계세요. 차라도 한 잔 내드릴게요.

미심쩍지만 여름은 홀린 듯이 자리에 앉는다. 곧바로 차 두 잔과 주전자를 들고 자리에 앉는 K.

K: 소개부터 해야할 것 같네요. 여기는 작은 찻집이에요. 물론 일반 찻집은 아니죠. 여름 씨가 온 길처럼, 꿈을 통해야 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조금 복잡하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잘 안 되실 거고요.

여름: (혼란스러워 하며) 네 조금..

K: 그냥 꿈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저희 찻집은 보통의 차를 내리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보통은 우려내지만, 우리는 보관을 하죠. 저기 찻잔들 보여요? 찻잔마다 조금씩 찻물이 고여 있어요.

(현실에서의 감정들, 찻잔에 물이 고이고 마르거나 흘러넘치는 장면 미장센) 우리는 그걸 네모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이라고 부르죠. 넘칠 듯한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그 만큼 의 찻물이 고이고, 고여요. 고인 찻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넘치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 수업 내용을 기억하나요?

여름: (생각하다가 갑자기 K가 교수처럼 했던 수업이 떠오르고) 아, 그 .. 표면...?

K: 표면장력.

S#7

여름: 네 (조원1)님 발표 준비만 잘 해주세요.

조원1: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아 제가 발표를 맡았었나요?

여름: 네.. 그 때 자료 조사못하신다고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원1: (곤란한 표정으로) 아 사실.. 제가 무대공포증이 있어서 발표를 잘 못해요ㅠㅠ 제가 했 다가 괜히 감점 될까봐...

여름은 조원2를 쳐다본다. 조원2는 휴대폰에 열중하다가 그제서야 여름을 쳐다본다.

조원2: 네?

여름: (고개를 저으며) 그럼 발표도 제가..

조원2: 저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당 발표날 봬요!

여름: (나가려는 조원2를 붙잡는다) (조원2) 학우님.

조원2: 네?

입을 쉽게 떼지 못하는 여름.

S#8

(씬 설명 : 여름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 + 조별과제를 다 떠맡게 되어 지친 상황)

친구: 표정이 왜그래.. 무슨 일 있어?

여름: 아무것도 아니야..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 피곤해서 나 먼저 갈게.

친구: 여름아 잠시만! (여름이를 붙잡다가 가방을 떨어뜨린다.)

여름: (화를 내며) 괜찮다고 했잖아!!